

중기·소상공인 정책플랫폼 발대…“위기극복 발판”

ECONOMY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중소기업주간 맞아 중기중앙회 등 12개 단체 참여
나주몽 교수 “전략산업 연계·스마트 전문화 필요”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제 37회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을 맞아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우리지역 살리기, 정책 플랫폼’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책플랫폼은 지역 경제계가 힘을 모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활력을 불어넣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발족했다. 발대식에는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 박병철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 강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장, 전상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 회장, 이민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박정선 전남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은행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장, 송기현 한국의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장,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 고수경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장, 김승재 광주상인연합회장,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 등 12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정책플랫폼이 향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거듭나기를 한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등 12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지역 살리기, 정책 플랫폼’ 발대식을 개최했다.

로 요청했다.

정책 플랫폼의 비전 제시를 위한 특강도 마련됐다.

나주몽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

역경제 현황과 지역발전 과제’ 주제 강연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 기반 강화 및 혁신생태계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나 교수는 “광주는 AI집적단지, 미래차, 에너지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 중이고, 전남은 기존 철강 및 화학 등 소재산업에서 에너지, 농생명, 바이오산업

기반 전략산업을 추진 중이다”며 “하지만 중소기업과의 유기적 연계는 미흡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기업 가정신의 관점에서 신사업 발굴 및 지원하고 스마트전문화정책을 통한 기업의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 교수는 또 정책플랫폼 중심의 스마트전문화 추진을 강조했다.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심층분석해 차별화 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경제구조도 고도화로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경준 회장은 “협회와 단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분야의 작은 목소리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며 “정책플랫폼을 통해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광주은행, 8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혁신성과 호평

지방은행 부문…신뢰성 등 로열티 우수
토스뱅크 협업·외국인금융센터 개설 등

광주은행이 8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브랜드 위상을 입증했다.

광주은행은 13일 본점에서 고병일 은행장과 한상록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BPI 1위 인증식을 개최했다.

K-BPI는 국내 대표 브랜드 평가지표로,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1만2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1대1 면접조사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로열티를 종합 평가한다. 광주은행은 이 조사에서 신뢰성, 가격 프리미엄, 이용대비 노력까지, 타인 추천의향, 의미 전달성 등 로열티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2018년부터 8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를 지켜내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광주은행이 지역사회의 필요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은행은 지역 기반을 지키면서도 디지털 혁신과 포용금융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토스뱅크와 금융권 최초로 공동 출시한 ‘함께대출’은 광주은행의 개인대출 취급 노하우와 토스뱅크의 전국 단위 사업 플랫폼이 만나 뜨거운 시장 반응을 끌어냈다.

또 올해 초엔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고병일 광주은행장(왼쪽)과 한상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전무가 인증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국인금융센터를 개설,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을 위한 금융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8개국 언어 통번역 시스템과 4개국 외국인 직원을 창구에 배치해 공감대 형성을 통한 맞춤형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연고 마케팅의 좋은 예로 ‘기아 챔피언스카드’를 출시해 전국적인 호응을 얻으며 브랜드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

전남중기일자리진흥원 ‘일자리희망버스’ 시동

23일 여수유월드루지테마파크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오는 23일 여수 유월드루지테마파크(㈜유심천레저산업에서 ‘2025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1차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여수지역의 고용환경과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근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며 관광·레저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수시는 ‘국제 해양관광 휴양 도시’라는 비전 아래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경

제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일자리희망버스도 이러한 지역 전략과 맞닿아 있다.

이번 1차 일자리희망버스는 채용계획이 있는 도내 관광·레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 현장 탐방과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구직자와의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참가기업인 여수 유월드루지테마파크 유심천레저산업에서는 10개 직종 2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다양한 구직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는 사전 컨설팅, 기업소개 및 탐방 등으로 구성되며, 중기일자리진흥원은 행사 전까지 구직자 적극 발굴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송현기 기자 swg318@gwangnam.co.kr

전남TP, ‘중기 밀집지역 FGI 협의체’ 개최

산업현장 위기 대응 실질적 해법 모색

(제)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는 최근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2025년 1분기 전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FGI(Focus Group Interview)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에 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나주 오랑·노안 농공단지와 순천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등 에너지 산업 관련 중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FGI 협의체에는 전남도,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부 지원사업 소개, 기업의 위기 상황 제고, 내·외부 애로사항 및 정부 정책 제언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업 대표들과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청년 채용의 구조적 어려움, 국내 수요저 발주 감소 등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력 양성,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박셀바이오 NK세포 치료제
진행성폐장암 임상연구 착수

박셀바이오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 활성화지원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자사의 NK세포 치료제(VCB-1102)를 활용한 ‘진행성 폐장암’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화순전남대병원이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국제 임상 과제로, 박셀바이오는 NK세포치료제를 공급한다. 진행성 폐장암에 대한 1차 화학요법 단계에서 VCB-1102와 표준치료인 mFOLFIRINOX를 병합 투여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연구는 황준일 교수팀이 총 22명의 진행성 폐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앞서 VCB-1102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같은 병원 오인재 교수팀은 소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승인받아 진행하고 있다.

VCB-1102는 이미 간세포암 임상 2a상에서 주목할만한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 독립검토위원회 분석 결과, 16명의 환자 가운데 3명(18.75%)이 완전 반응, 8명(50.00%)은 부분반응을 나타내 환자 11명이 암종양이 관찰되지 않거나 크기가 줄어든 객관적 반응을(68.75%)을 보였다. 나머지 5명(31.25%)도 안정병변(SD)을 나타내 질병조절률 100%를 기록했다. 치료 후 암이 진행하지 않는 중앙진행까지 시간(TTP)은 임상연구자 결과에서 16.82개월로 기존 치료제에 비해 두 배 길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한전, 7분기 연속 흑자…1분기 영업이익 3조7500억

연료가격 안정화·요금조정 등 영향 전년비 188.9% ↑

한국전력이 연료가격 안정과 요금조정 등 영향으로 7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를 나타냈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24조2240억원, 영업이익 3조753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4%, 188.9%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7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296.3% 증가한 2조3617억원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료 가격 하향 안정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등이 실적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기판매수익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3조2112억원을 달성했다. 판매량이 0.5% 감소했으나 판

매단가는 전년 대비 5.3% 오르면서 1조462억원 증가했다.

지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는 각각 전년 대비 18.7%, 4.8% 줄어든 5조100억원, 8조7568억원을 기록했다.

지회사 연료비는 원전 발전량 증가에 따른 발전자회사의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감소 및 연료가격 하락으로 감소했다. 전력구입비는 구입량이 증가했지만 SMP(계통한계가격) 하락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양만권 ‘황금일반산단’ 2단계 산업용지 분양

3.3㎡ 당 97만원선…광양지아이(주), 올해 말 준공 예정

(주)BS한양의 자회사인 광양지아이(주)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조성중인 황금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업용지 분양에 나선다.

13일 BS한양에 따르면 광양항 배후단지과 연계한 친환경·첨단산업단자인 황금일반산업단지는 광양시 황금동 일원에 총사업비 2926억원을 투입해 111만5000㎡(약 33.7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1차급속, 급속가공,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가공업 등 신소재 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1단계 용지 60%

가량이 분양돼 신소재 생산기업과 물류기업 등이 순차적으로 입주 중이다. 2단계 용지는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내년부터 입주 가능하며, 1단계 잔여 용지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3.3㎡ 당 97만원선으로 인근 산업단지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산업용지 조성원가가 계속해 상승하는 추세인 데다 인근의 광양만권 내 추가 공급가능한 산업용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즉시 입주 가능한 황금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황금일반산업단지

황금일반산업단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입지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수소산업,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수요 증가에 따라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산업단지로 꼽힌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대출 규제 피하자…아파트 입주율 ‘경중’

광주·전라권 73.3% 전월비 17.7%p 상승

지난달 광주·전라권 아파트 입주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월 대비 17.7%p 상승했는데,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여파로 분석된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광주·전라권 아파트 입주율은 73.3%로 전월 대비 17.7%p 상승했다. 이는 올해(1월 66.0%→2월 61.1%→3월 55.6%) 들어 가장 높은 입주율이자 지난해 2월 75.1%를 기록한 이래 14개월 만에 최고치다.

주산인 측은 지방 대도시의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시장회복 기대심리를 자극했고,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

계 시행 전 규제회피성 수요가 맞물리면서 입주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3.7%로, 전월 대비 13.9%p 뛰었다. 수도권은 81.5%에서 83.5%로, 2.0%p, 5대광역시 49.6%에서 65.9%로 16.3%p, 기타지역도 59.3%에서 75.9%로 16.6%p 대폭 상승했다.

특히 미입주 원인 가운데 기존주택 매각 지연(40.7%→36.5%), 전금대출 미확보(31.5%→28.8%)가 감소하며 실수요자의 입주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양권매도지연(7.4%→5.8%)도 감소하면서 주택시장 투자 및 거래여건 회복이 입주를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주산인 측은 봤다. 송대용 기자 sdw0918@